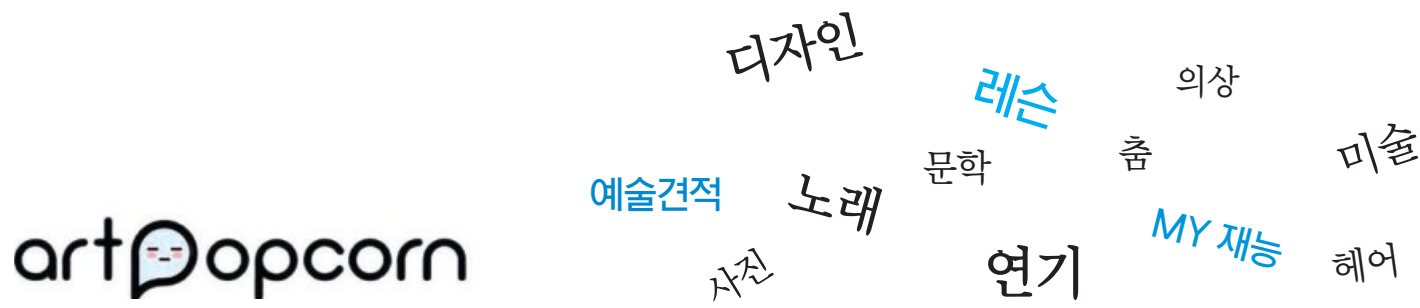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8월호

톡톡 튀는 예비 예술가 모여라

‘현직 아나운서에게 배우는 스피치’,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금손 메이크업’, ‘연기 레슨 원데이 클래스’...

문화예술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예술가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꿈과 관련된 분야의 강연이나 강의를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언택트 문화와 비대면 라이프스타일이 사회적으로 확산하면서 학원이나 강연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프로그램들이 사라지는 추세이며, 코로나 19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기회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광주에서는 문화예술분야의 활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탄생한 것이 ‘(주)아트팝콘(대표 강남진)’이다. 백제예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강남진 교수가 만든 아트팝콘은 지난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지난 5월께 오픈했다.

‘예술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행복을 만들어드리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만들어진 아트팝콘은 다양한 예술장르의 아티스트들과 예술소비자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을 하는 예술콘텐츠 매칭 플랫폼이다.

아트팝콘에서는 노래, 춤, 문학 등의 분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으며, 예비 예술가들이 정식 아티스트로 데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아트팝콘은 ‘레슨’, ‘MY 재능’, ‘예술견적’ 등 세 파트로 나뉘며 운영중이다.

‘레슨’은 나의 재능에 맞는 분야의 전문 아티스트를

예술매칭플랫폼 ‘아트팝콘’

아티스트 강의 듣고 재능 평가받고

백제예술대 강남진 교수 제작



강남진 교수

있다.

이밖에 아트팝콘을 통해서 나의 재능과 끼를 담은 영상을 업로드 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연극, 뮤지컬 등 오디션 소식도 만날 수 있다.

강남진 대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예술 상담과 교육이 가능한 ‘원포인트 레슨’ 어플리케이션도 제작했다. 이를 통해 레슨 콘텐츠가 국내 뿐 아니라 케이팝을 배우고자 하는 해외팬들에게까지 확대돼 ‘K-ART’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트팝콘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

선택해 강의를 받을 수 있는 파트다. 연출가 강남진, 화가 정상섭, 연극배우 윤희철을 비롯해 배우 조주희, 김형근 등이 강사로 나섰다.

음악, 댄스, 연기·영화·드라마, 사진·영상, 의상·모텔·헤어·뷰티, 디자인,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 강의를 골라 들을 수 있으며 서울, 경기·인천, 광주·전라 등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어 지역별로 아티스트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은 춤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단기 속성 댄스 레슨을 비롯해 로고 디자인, 여행 드로잉, 경력자와 함께하는 자기소개서, 면접 쪽집게 레슨 등이 있다.

‘MY 재능’은 각 분야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재능(상품·콘텐츠)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배우 조영훈·신경수의 연기 강습을 비롯해 논문·자소서, 초상화·인물화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이용할 수

예능



팬덤 문화, 어떻게 장르가 되었나 제주 빛의 병커서 만나는 ‘지중해’

역주행의 신화로 ‘밀보드(군대 빌보드)’ 1위곡이 된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9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방탄소년단(BTS)의 뒤에는 팬덤이 존재한다. 팬덤의 영향력은 이제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 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은 8월호 특집으로 ‘팬덤 문화, 장르가 되다’를 준비했다.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생일을 맞은 스타를 축하하기 위해 현열을 하고, 기업에 요청해 광고 모델로 발탁하게 하는 등 팬덤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팬클럽이 등장했던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팬덤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콘서트 현장을 찾은 열정팬들의 모습, 대중문화 전면에 나선 중장년 팬들까지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된 팬덤 문화를 들여다 본다.

예향 초대석을 찾은 주인공은 고희 태생인 김금숙 그래픽 노블 작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이산가족, 발달장애 뮤지션, 여성 독립운동가까지 작가는 역사와 사회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목해 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삶을 다룬 만화 ‘폴’로 미국 하비상(Harvey Awards)을 수상한 작가의 신작 ‘개’ 이야기를 들었다.

‘남도 오디세이 美路迷路(미로미로)’가 찾아간 곳은 ‘예향(藝鄉)’ 진도다. 진도(珍島)는 윤림산 방과 세방낙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갖춘 ‘보배섬’이다. 곱창김, 자연산 돌미역, ‘땅에서 나는 황금’ 울금 등 지역만의 특산물도 다양하다. 진도북춤과 남도 씻김굿과 같은 민속예술도 토요일마다 무대에 올려진다. 한여름 ‘대한민국 민속문화 예술특구’ 진도의 신명과 매력에 빠져보자.

여름기획으로 전시와 자연으로 힐링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제주 빛의 병커

‘지중해로의 여행’ 전. ‘모네, 르누아르...사갈:지중해로의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지하 병커의 장소성을 활용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로, 인상주의와 모더니즘 시기에 활동했던 화가들의 500여 점을 어둠속 빛의 언어로 풀어냈다. 특히 음악을 곁들인 전시는 관람객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며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을 위로했다.

폭풍 썰은 무더위에는 자연으로의 도피도 생각해 볼 만 하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몸과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휴가를 떠나라고 할 수도, 그렇다고 집에만 꼭 박혀 지내라고만 할 수도 없는 힘든 8월이 시작됐다. 여행객이 물리지 않는 관광전남의 힐링여행지 Best 5를 선정해 소개한다. 사진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대리만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문화 바이러스’ 퍼뜨리는 예술단체가 만난 이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3중주 ‘트리오제트’. 클래식은 물론 재즈, 팝송, 탕고, 뉴에이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즐긴다는 이들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고 작은 공연을 계속 해오고 있다. 탄탄한 팀워크와 기획력이 최고의 강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연주자들의 음악세계로 들어가본다.

이외에 작품 속 ‘집’을 모티브로 작업실터에 지은 하우스 뮤지엄 백영수 미술관, 소설 ‘동백꽃’의 점순이를 만나보려 한해 수십 만 명이 찾는다. 김유정 문학촌, 휴가철 불만화 화제의 전시 이견희 컬렉션 광주·서울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불보사찰 통도사도 소개한다. 등단 5년만에 첫시집 펴낸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시인 진혜진, 뜨거운 타격감으로 ‘호랑이 군단’ 7월 6연승 이끈 KIA타이거즈 김호령 선수와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삶, 그리고 선택

유·스퀘어청년작가 최소애전

금호갤러리 5~18일



‘삶, 그리고 선택’

한국화가 최소애 작가 개인전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금호갤러리가 지난해 진행한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전시로 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화의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작품을 전시한다.

‘삶, 그리고 선택’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 최

작가는 사회가 강요하는 틀에서 벗어나 이상향을 추구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소재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작은 집과 달팽이 한 마리다. 집은 현대사회의 억압된 작은 공간을, 달팽이는 현실과 타협하지 못한 채 나무에 붙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징하며 결국은 정해진 틀에서 벗어

나고픈 마음들을 담고 있다.

한국화의 주 재료인 분체를 장지 위에 겹겹이 발라 가볍지 않은 색깔을 드러내는 작품은 여백의 미와 어우러져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최 작가는 조선대학교 한국화학과를 거쳐 현재 동대학원에 재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